



鄭夢憲 / 現代電子産業(株) 社長 / 本會 非常勤副會長

새로운 時代

며칠 전 파리에서 EC 12개국 頂上會談이 열렸다. 그 會談의 주제는 1992년말로 예정된 域內統 合問題보다 최근 가속화되기 시작한 東歐改革에 대한 EC의 대응과 지원책 이었다고 한다. 그 會談에서 현재 난관에 처해 있는 東歐經濟를 지원하기 위한 東歐開發銀行의 설립과 第2의 Marshall Plan 등이 논의되었다. 2次大戰 이후 높은 理念의 장벽으로 東西가 대립했던 지난 40년간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럽은 얽히고 설킨 歷史의 실타레를 과감히 풀고 새로운 歷史, 하나의 유럽을 향해 그 일보(작으나 실로 그 의미가 심대한)를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유럽統合의 움직임이 기본적인 美·蘇 兩極體制下에서 낙관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물론 주변국가 개개의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과 함께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東西間의 세력균형을 자칫 깨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더해주는 점도 없지 않으나 좀더 人間이 살기 좋은 世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그를 막을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전도는 비교적 밝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그동안 南北間에 진행되어 왔던 제2차 故鄉訪問團 구성을 위한 赤十字會談이 결

국 쌍방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離散家族들의 年內 故鄉訪問의 꿈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世界의 한편에서는 民族을 초월해서 공영의 길을 추구하는 마당에 우리는 한민족끼리 공존의 길조차 마련하지 못함을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南과 北의 관계도 이제는 敵對·對立의 관계에서 友互·協力의 관계로 발전시켜 統一로의 길을 함께 닦아야 할 것이고, 南은 그동안 신장된 國力을 바탕으로 그 關係正常化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歷史를 보면 큰 변혁기는 필연적으로 많은 위험과 기회를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日本은 19세기 중엽 비슷한 시기에 西歐列強으로 부터 개항요구를 받았다. 日本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선의 위력에 눌려 개항을 결정하였고, 신속하게 西歐文物을 받아들인 반면, 우리나라는 용감하게 저항하여 굴욕적인 개항은 면하였으나 20년 후에는 심지어 일본으로 부터도 強制開港을 강요당하는 굴욕을 맛보고 급기야는 日本의 침략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의 선악이나 歷史發展의 정반을 떠나서 똑같은 상황이 日本에게는 기회로, 우리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그러한 상반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음미해 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대 변혁의 시기를 위기라고 하는가 싶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내부의 개혁을 위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외부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

지난 歷史의 과오를 반성하고, 구원을 용서하고, 또 가진 것을 양보하고 버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변혁의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풍랑을 만난 배에서 불필요한 화물을 바다에 버리듯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과거의 아픈 歷史에서 우리를 풀음으로써 자유로이 새 시대를 향해 헤엄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제 世界는 개방과 함께 질적으로 다른 통합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 해묵은 理念, 政治, 經濟, 社會의 갈등이 하루 아침에 풀리지야 않겠지만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1990년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1990년대에 우리가 겪을 변화는 우리가 지난 세기에 겪은 변화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큰 변화의 물결을 더 높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未來를 향해 모아야 할 것이다.